



통권 16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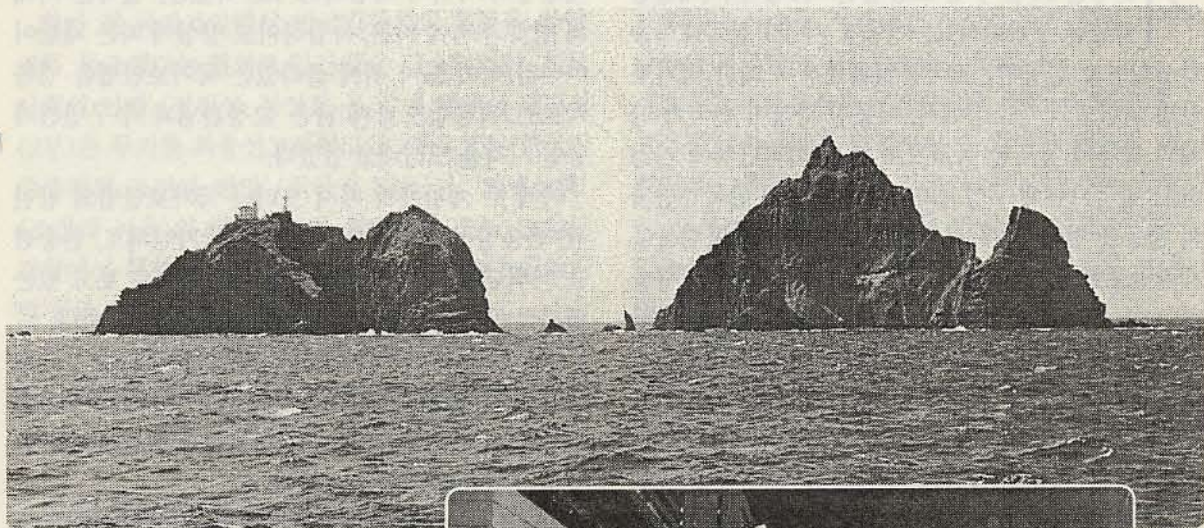
후원회 소식

발행일 2005. 4. 7

발행인 권오현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독도는 우리 땅!



▶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독도수호, 다카노 일본대사 추방 촛불문화제」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2/ 출소장기수를 찾아서-방장련선생님 이창희 • 5/ 양심수의 목소리 임제성 • 9 / 감옥에서 온 편지 김성환 • 10/ 양심수가족을 찾아서 이주연 • 11 / 알립니다 • 12/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 13/ 이런 회원-김길자 회원 오영순 • 14/ 회원마당-보광사 가는 길 이득행 • 15/ 회원마당-산행기 김은, 나민정, 나민지 • 16/ 회원마당-통영국제음악제에 다녀와서 이용준 • 18/ 낙성대 이야기 • 19/ 자료-512년 신라 지증왕 때, 독도는 우산도 • 20/ 시사만평 • 21/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 22/ 이런 일이 있었어요 • 24/ 재정 보고 • 31/ 회비를 내주신 분들 • 32

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960-141

전화: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민가협 전화: (02)765-5282 전송: (02)745-5604

시대를 거역하는 국가 보안법,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법판단

- 한총련 지도 간부들에 대한 최근 선고 공판을 보고

권오현 회장

지난 3월 16일 부산 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이동진 제7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이동진 학생이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통신연락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동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점 그리고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 수행을 위해 반국가단체 지역으로의 탈출(또는 잠입)한 혐의등 공소내용을 대부분 인정 원심으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3월 25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 22부(재판장 최원순 부장판사)는 백종호 제12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같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혐의 등 공소내용을 인정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부산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한총련지도간부에 대한 이 같은 선고는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차이는 있었지만, 이미 존립명분을 잃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도식적으로 적용 유죄판결을 했다는데서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 두 재판부의 이같은 사법판단은 최근 서울 중앙북부지법 형사 11부(2004.10.12)와 서울 고법 형사5부(2004.12.14) 등 다른 법원에서의 한총련 대의원(한총련 불탈퇴 혐의)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한 점과 사뭇 달랐다.

특히 부산고법은 국가보안법 개폐여부를 지켜보겠다며 두 번씩이나 선고공판을 연기했었는데 (그 뒤

재판장이 바뀌어 재심리하기도 하였음) 결국은 시대의 변화 추이에 따른, 독립적이고 양심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이미 도마 위에 올라있는 국가보안법을 맹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낡은 고정관념과 수구냉전적 공안 시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제 두 재판에서 다시 드러난 국가보안법의 반인권, 반통일성과 이복을 여전히 반국가단체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한총련 활동을 이적행위로 보고 있는 냉전적 공안논리의 모순성을 고발, 규탄하려 한다.

법은 누구에게든지 평등해야 하고, 누구든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며, 시대정신과 현실사회를 반영하는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일은 통치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한총련과 대부분 같은 강령과 규약을 갖고 있는 다른 사회단체들, 아니 한총련보다 더욱 강성의 강령과 정책을 갖고 있는 정당과 사회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총련(또는 범민련, 범청학련, 한청 등)만 처벌하고 있는 공안당국과 사법당국의 공안논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이란 보편성에 배치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해, 1400명의 단식농성단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 투쟁을 벌이고 있을 때 확인된 바와 같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개폐론을 지지했고, 아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이 악법을 지킬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인민군 포로'입니다.

-속초에 살고 계시는 당장연선생님을 뵈고

그뿐이 아니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입건 또는 기소되었던 '한국 사회의 이해' (정진상, 장산환 공저)에 대해서 대법원 (2부)은 무죄를 최종선고하였고 (2005.3.15)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최창집 지음)과 '태백산맥' (조정래 지음)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고소, 고발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공소권 없음 (서울중앙지법 공판 1부) 등으로 처분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시대정신과 현실사회를 반영할 수 있는 실효성이 이미 오래전부터 떨어지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그 적용사를 보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자주통일을 가로막으며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이 규정한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창작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이 법은 또한 전반적인 애매모호성과 불명확성으로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지고 가중처벌되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근대형법원리에 배치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에서 사법당국은 이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라며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 제2조가 규정한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적용시키고 있다. 바로 북진통일론과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한다는 역사의 반동시대

수구냉전 논리였다.

그러나 시대를 거역하는 이같은 반민족적 규정은 남쪽의 최고통치자도 거부하고 있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재직중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두고서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했으며,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으로 남과 북은 다같이 서로에게 반국가단체가 될 수 없었다.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법정부만이, 평화애호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연합(UN)에 함께 들어갔으며 불법단체와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남북사이 당국자회담이 진행되어 왔다. 한해동안 2만명이 넘는 사람이 남과 북으로 오고가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자진지원, 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를 하고 있었지만 처벌되지 않고 있다.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같은 반국가단체규정은 국가보안법이 존립할 기본요체이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의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법당국은 한총련 (범민련, 범청학련, 한청 등도 같다)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 했다.

이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3항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이적단체 규정은 위에서 말한 이북을

시대를 거역하는 국가보안법, 시대를 읽지 못하는 사법판단

—한총련 지도 건부들에 대한 최근 선고 공판을 보고

신오현 기자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북에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한총련 또한 이적단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재판부 또한 그랬다)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체결 등 강령을 문제 삼아 이북의 대남 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고 했다. 하지만 반세기 넘게 서로 다른 사회체제와 제도 이념을 지향해 온 남과 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 서로의 체제와 제도, 이념, 사상 정견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연방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6·15 공동선언에서도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또한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 지났어도 불안한 휴전상태일 뿐 평화가 보장되는 종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당사자 사이의 평화협정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였다.

한총련은 공안당국이 문제삼고 있는 연방제통일강령을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고치기까지 하였다. 이제까지 한총련이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해 오면서도 이북을 이롭게 하거나 이남을 해롭게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해 활동해 온 것은 찬양과 격려를 받아야 하지, 이적단체로 묶여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4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집권 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이다.

시대를 거역하는 국가보안법은 개정이나 대체입법, 형법보안이 아니라 완전 폐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과 잘못된 사법 판단으로 유죄판결 받아 갇혀있거나 인신제약을 당하고 있는 이동진 조통위원장과 백종호의장 등 한총련 관련 학생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하고 수배 해제와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

특히 70 고령의 강태운 민주노동당 고문과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기채 학생등 부당한 사법 판단으로 장기형이 확정되어 갇혀있는 모든 양심수에게 빠른 시일 안에 석방과 사면, 복권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瘡

“나는 ‘인민군 포로’ 입니다.”

- 속초에 살고계시는 방장련선생님을 뵙고

이창희 회원

3월 26일 권오현 회장님께 전화를 받았다. 장기수 선생님에 대한 취재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포로였음에도 송환되지 못한 장기수 선생님의 역사를 기록하자고 하셨다. 그래서 다음날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현재 속초에서 살고 계신 방장련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었다.

1. 성장

1933년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에서 철도국 공원 노동자이셨던 아버지 방효철님과 어머니 조태월님의 2남 1녀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님께서 함경남도 해산군 포안 간이역에서 근무하셔서 백두산이 근처인 그 곳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자랐다. 덕분에 당시 항일빨치산들의 활동을 직접 보기도 했고, 김일성 장군과 보천보 전투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독립정신을 키우게 되었다.

1945년 해방을 아버님의 전근지였던 함경북도 성진시(지금 김책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이하였다. 중학교는 북청군 신북천면에서 다녔는데 당시 월반까지 하며 공부를 소문나게 잘 하셨고, 운동도 학교 배구 선수를 할 정도 잘 하셨다고 한다.(인터뷰하면서 필자에게 느껴지는, 73세이십에도 또렷이 빛나는 까만 눈동자와 다부진 몸매는 그 이야기를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았다.) 1949년 다시 아버님의 전근으로 평양으로 이사하였고, 당시 고등학교 격인 평양 제3고급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2. 전쟁과 포로

1950년 전쟁당시 선생님께서는 고급 중학교 2학년



이었다. 자신은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줄 몰랐다고 하셨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강한 느낌은 6월 28일경 미 공군의 평양 군수시설 등에 대한 폭격을 통해 가지셨다고 한다.(선생님께서서는 당시 미 공군의 놀라우리만치 군수시설 등에 대한 정확한 폭격으로 이미 미군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추측을 가지신다. 더불어, 당시 같은 학교에 다녔던 동료들 중 형제나 아버지가 군에 계신 분이 많아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미 전쟁은 개성 송악산과 웅진반도 은파산 등에서 1949년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다. 1949년 ‘호림전투사건’에서는 국방군이 원산 근처까지 쳐들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주에서 무장독립투쟁을 하였고, 중국혁명을 도운 조선의용군 지도자였던 무정장군은 ‘전쟁 명령을 내려라’라고 주장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셨다. 이러한 것 가운데 현재 이승만의 북진통일론 연구 등을 통해 적지 않

학생들 사이에서는 동족끼리 싸운다는 것 때문에 전쟁에 대한 주저함도 약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앞의 사건으로 인해 미군을 조국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인민군에 지원하였고, 인민군 105연대 15대대에서 지휘 분대장이 되셨다. 그래서 전라남도 함평까지 내려왔고 미군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은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많은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한국전쟁의 역사적 구명이 계속 필요하다.)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는 동족끼리 싸운다는 것 때문에 전쟁에 대한 주저함도 약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앞의 사건으로 인해 미군을 조국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인민군에 지원하였고, 인민군 105연대 15대대에서 지휘 분대장이 되셨다. 그래서 전라남도 함평까지 내려왔고 미군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9월 29일에 후퇴명령이 나왔으나 추풍령 등에서 퇴로가 막히자 지리산으로 입산하였다. 동료들이 부상당한 자신을 80리나 업고 다녔으며, 전라도 유격대 사람들은 당시 어려운 전쟁 상황에서 개고기까지 해주며 자신을 돌봐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각도 체제로 산재된 게릴라 투쟁은 후방 전쟁을 통괄 수행하는 '이현상 부대'로 통합되었고, 1952년 겨울 대토벌 공세 당시 1월에 전라남도 장수 근처에서 포로가 되셨다.

3. 기막힌 처우

광주포로수용소에서 10개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차에 태우고 포로를 분산 배치하였다. 선생님께서는 당시 휴전협상을 통해 이북에 송환되는 줄 알았는데 대구형무소로 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에서는 국군포로에게 남을 것인가, 갈 것인가의 의사를 물었다고 하는데, 남에서는 자신들의 어떠한 의사도 묻지 않은 채 황당하게 인민군 포로를 국가보안법 특별 조치로 기소하면서 법정에 세우더니 자신에게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선고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인민군 포로들은 이러한 남쪽 법정에 대해 조롱을

보냈지만, 법정은 너는 사형, 너는 무기, 너는 20년형 등의 식으로 선고를 했다고 한다. 선생님께서는 알고 있던 이육이라는 인민군 포로는 실제 사형을 당하였다고 한다. (전쟁 포로를 자국 법정에서 범죄자로 다루는 것은 제네바 협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선생님께서는 당시 1934년생 만19세로 나이가 계산되어 소년범으로 취급되어 형행 성적이 좋으면 5년, 나쁘면 10년을 복역하는 소년교도소의 징역형을 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선생님은 소장 면회를 요구하였고, 그를 만나자 “나는 인민군 포로이다. 여기 있을 수 없다. 송환해 달라. 당장 나가게 해 달라”라고 따지셨다. 선생님께서는 부당한 형무소 생활에서 결국 결핵을 앓으셨고 각혈을 하자, 마산에 있는 결핵치료 교도소로 옮겨졌다. 그 후 1960년 4·19 혁명으로 인해 8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른바 ‘전향’ (전향공작은 주로 박정희 정권시절인 1970년대에 있었다)없이 1960년 10월 1일 석방되었다.

4. 월북 시도

석방되자 부산에 있던 사법보호소에서 몇 개월을 지내셨다. 한 고향 분으로 1년 전 먼저 석방된 이인모 선생님께서 찾아와 “같이 지내자”고 하셔서 함께 생활하였다. 선생님 덕택으로 감옥에서 배운 양복기술도 있어서 양복점에 취직을 하였는데, 양복점 주인이 자신이 전과자라는 약점을 아는지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아서 싸우고 나왔다고 한다. 이인모 선생님께서는 엄청난 인격자이셨기에 “우리가 돈 벌라고 사는가, 돈 갖고 다투지 말라”며 타이르셨지만, 못 마땅하여 헤어졌다고 한다.

온갖 고문을 당하여 송장처럼 나온 적이 계셨다. 무릎에 매 맞은 흔적으로 속초에 살며 한 동안 해수욕도 못했다고 한다. 큰 아이 앞에서 잡혀갔는데 집안 신조가 '웃으며 살자'였기에 아이는 아버지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야 통곡하였다는 이야기를 석방된 후 괴로운 마음으로 들었다고 하셨다.

그 후 선생님께서는 양복기술을 활용하여 이곳저곳에서 여비를 마련하고, 마침 이북에서 피난 왔던 고향 사람을 만나 함께 자취방에서 살며 건강도 회복하였다고 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친구 분과 같이 그 분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강원도 양구 근처로 가서 월북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4.19 혁명 이후 대학생들의 월북이 잦아 경찰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인지 금방 경찰에 잡혔다. 출소증을 지니고 있어 빨갱이라고 엄청난 구타를 당하셨다. 하지만, "속초 8촌형님을 찾으러 갔는데 양구 근처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진짜 8촌형님이 속초에 계셔서 온 좋게 석방되었다.

다시 반드시 북으로 간다는 신념에서 속초에서 오징어잡이 어부생활을 하셨다. 오징어 배를 타고 오징어가 많다는 38선 근처해역에 있으면 이북의 군함에 나포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으로 하신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북쪽에 오징어가 많다. 조금 더 북으로 올라가자"며 사람들을 꼬였다고 한다. 그 바람이 얼마나 크셨던지 배가 남쪽을 향하면 멀미가 나고, 북쪽을 향하면 멀출 정도였다고 하셨다. 마침 군함이 나타났는데, 북의 군함인줄 알고 좋아했는데 '밀으로 내려가라'는 남의 군함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몇 개월을 시도하시다가 결국 포기하셨다.

5. 괴로운 남쪽 생활

선생님께서는 속초에서 양복점을 하며 정착하였다고 하셨다. 경찰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며 정착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솜씨가 좋아서인지 8촌형님께 집도 사드렸다고 한다. 1964년 32살에 최은자 사모님과 만나셔서 결혼을 하시고 2남 1녀를 얻으

셨다.

하지만, 경찰들이 양복점에 자주 찾아와 돈, 술, 식사 등을 요구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이러면 장사를 어떻게 하나"고 항의하기도 하셨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이들만큼은 구김살 없이 키우자고 탁구대도 사주고 카메라도 사주었는데, 어느 날 보안대 김수산이라는 작자가 찾아와 부대에 '회사' 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빼앗겼다고 하셨다.

또 한 번은 중앙정보부 강원도 지부에서 끌려가서 이북 방송 듣느냐는 질문에 "고향 소식 알려고 이북 방송 듣는다"라고 답하였다가 온갖 고문을 당하여 송장처럼 나온 적이 계셨다. 무릎에 매 맞은 흔적으로 속초에 살며 한 동안 해수욕도 못했다고 한다. 큰 아이 앞에서 잡혀갔는데 집안 신조가 '웃으며 살자'였기에 아이는 아버지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야 통곡하였다는 이야기를 석방된 후 괴로운 마음으로 들었다고 하셨다. 그렇게 하도 공안당국에게 시달려 22년간의 속초 생활을 정리하고 부천에서 15년을 사시기도 하셨다.

그렇게 심했던 그들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그 해 9월 2일 1차 비전향 장기수 송환 때 장기수 범위(7년 이상 징역 산 사람을 통칭 장기북역수라고 한다)가 어디까지 인가하며 궁금해 하면서 "연락 오겠지"라고 기다렸지만 오직 감시만 철저히 하는지 깜깜 무소식이었다. 결국 '인민군 포로'로 비전향장기수 송환대상 자격이 계셨음에도 송환되지 못하셨다.

6. 당당한 요구

현재 선생님께서는 2차 장기수 북쪽 송환을 인민군 포로로서 요구하고 계신다.

이미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신념과 사연을 다 이야기하셨다고 하였다. 사모님과 자식들도 선생님의 꿈인 '송환'에 동의하였다고 하셨다. 예전부터 선생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당당히 '인민군 포로'라며 제네바 협정에 맞게 자신을 송환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 불행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은 잘 키웠다고 하셨다. 아이들은 대학교에 가서 선생님께서 “너희들은 잡혀가면 다르게 걸릴 수 있다. 조심해라.”고 할 정도로 데모까지 열심히 하였다고 한다. 이미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신념과 사연을 다 이야기하셨다고 하였다. 사모님과 자식들도 선생님의 꿈인 '송환'에 동의하였다고 하셨다. 예전부터 선생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당당히 '인민군 포로'라며 제네바 협정에 맞게 자신을 송환시켜 달라고 말씀하셨다.

“이북 고향에 친척이 있는 사람의 도리로, 인민군의 당연한 권리로, 나의 사상에 맞는 땅에서 살겠다는 자유의지로 송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보내 달라.”

2005년 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동안의 요구를 같은 인민군 포로분들과 함께 진정서로 제출하셨다. 하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한다. 선생님의 성명서와 진정서 내용을 조금 발췌하고자 한다.

6·25전쟁 중에 퇴로가 막힌 인민군 부대들과 부상병들, 그리고 지휘체계를 확실하게 갖춘 민간 저항세력의 연합부대가 이른바 지리산 빨치산인 것이다. 제네바협약 제4조 A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적 전쟁포로들이며 정전협정 제3조 51항 1의 규정에 의해 휴전과 동시에 60일 이내에 공화국으로 송환되었어야 했던 것이다.

- '불법으로 억류당한 인민군 포로 일동' 명의의 성명서 중에서

누구의 인권에 대하여 말하기 전에 자기나라 안에 있는 엄중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

서일 것입니다. 국제법에 의하여 1953년에 이미 송환되었어야 할 전쟁포로들에게 이 나라의 역적들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를 고발하고 해결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중 일부

7. 마치며

선생님께서 과거 송환을 법적으로 요구하였을 때 지금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최병국이 당시 검찰 속초지청 공안검사로 있었다고 한다. 그는 선생님을 “합법을 가장한 공산주의자다. 뿌리 뽑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현재 국정원에서조차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분류한다고 하신다.

선생님께서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공산주의자가 얼마나 되기 어려운 사람인데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마구 말하는가”라고 말씀하셨다. 공산주의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공산주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한다고 하셨다. 그 말에 다큐멘터리 '송환'에 나오셨던 해맑은 웃음의 주인공이신 김영식 선생님 등 인터뷰할 때 함께 계셨던 장기수 선생님들도 “그럼”이라고 동감하며 웃으셨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참 부족한 나는 요즘 성공회대 NGO 대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참 복잡한 세상에서 변혁이 가능한가라는 우문을 자주 던지게 된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처럼 답은 가까이에 있다. 어렵지만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생활에서부터 반드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세상의 진정한 변혁은 시작되는 것이다. ◆

최후진술서

임재성 서울구치소 1560,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중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의 젊은 날의 많은 시간을 한국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이 감옥에 가두어지지 않기 위한 실천을 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것이 인류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던 전쟁을, 그 살육과 학살을 멈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앎을 저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개선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감옥에 가야했고, 평생을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고뇌의 시간동안 진정 내가 군대의 일원이 될 수 없는지,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는지 자문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오열하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꼭 병역을 거부해야만 되는가를 수없이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뇌의 시간을 통해서 전 지금 여기 법정에서 이렇게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비폭력과 평화주의의 신념을 지키고자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속되어있는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여호와의 증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내일 이곳에서 저와 같은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며칠전 그 친구가 징역살이가 힘들었는지 취침시간에 이불을 덮고 훌쩍이기 위해 일어나고 했더니, 자기 밑으로 남동생이 들어 있는데 그 녀석들도 이곳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재판장님, 현명하신 재판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형벌을 통해서 이후 병역거부자들을 막을 수 없고,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의

생각을 바꿀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 이후에도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광복이후 1만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이순간에도 감옥에 있는 천여명의 병역거부자들처럼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의 인권이 유린당했고, 그 고통의 신음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은 끝나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돈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며 이 사회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 길이 현역복무기간보다 훨씬 길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신념을 지킬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저와같은 양심을 인정해주지 않았기에 결국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병역거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저같은 소수자를 포용해 줄 수 있을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사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넘어서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대체복무제의 개선을 권고하는 많은 수의 의견이 존재했고, 이미 입법부에서도 병역거부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의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어쩌면 저는 얼마 후에 있을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확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단 한차례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저와같은 병역거부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저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 이 모순된 현실을, 계속될 비극을 바꾸기 위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의 젊은날을 감옥이 아닌, 이 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만용이 아닌, 인간이기 위한 양심을 지키는 싸움

안녕하십니까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입니다.

이천전기 해고자로 삼성해복투 의장으로 민주노총 해고자 복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03년부터 삼성관련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하다 05. 2. 22 울산구치소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02년 8월 영등포에 잡혀있을때 후원회 소식지와 영치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울산에서 소식지를 받고 거금의 영치금을 받으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과 격려에 부끄럽지 않게 생활하고 싸우겠습니다.

집행유예기간 3년 10개월 실행선고로 앞으로 3년 10월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구치소를 근거지로 정하고 분노와 적개심을 잘 간수할까 합니다.

막상 들어와서 생활을 하니 장기수 어른들과 양심수분들의 소내투쟁의 생활을 조금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목숨과 피로 쟁취한 권리에 안주하는 것 같아 염치가 없습니다. 혹시 초기 낙성대에 백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진돗개라 하여 기증을 하고 장기수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밥도 얻어먹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건설하여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 그리고 공공의 적 삼성재벌 이씨 일가와 맞서 싸우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존심이나 만용이 아니라 인간이기 위한 양심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알고 생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05. 3. 25 울산구치소 김성환

김성환님은 삼성재벌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지난 3월 28일부터 옥중단식중입니다.

김성환님 외에도 최승환(부산구58), 임치운(부산교50), 김성환(울산교27), 안기호(울산교24), 김성봉(청주교96), 윤치고(원주교891)님께서 편지보내주셨습니다.

또다시 3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할 순 없습니다.

이주연 양심수이동진 누님

글쓴이 이주연 누님은 이동진(99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경상대학교 총학생회장)님의 누나입니다.

동생은 99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99년 경상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년간 장기 수배생활을 해왔습니다.

말이 6년이지 그 긴 수배생활의 고통은 동생에게도 우리가족에게도 말로는 다 쏟아놓기 어려울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수배중인 것을 모르시고 “이 사람아, 언제 올랑가? 나 죽고나면 올랑가?” 하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땐 동생이 가슴 아파할 것이 걱정이되어 부모님은 한동안 할머니의 죽음을 동생에게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은 지난해 7월 26일 미행 중이던 진주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 구속되었고, 같은 해 10월 1일 구형재판에서 검사는 한총련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잠입탈출 교사(815행사 황해로씨 방북) 등을 이유로 들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구형했고, 10월 22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면서 한총련 관련 다른 재판에서 영장기각,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판결이 이어진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였습니다.

그날 재판부는 동생에 대해 ‘국가전복이나 민주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면이 의심스럽다’, ‘피고와 방청객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발상’, ‘피고

가 동지라고 부르는 이들이 받은 형량을 감안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하는 등 매우 정치적이며 주관적이었습니다.

동생의 재판 전날 헌법재판소가 수구의 편을 들어준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을 한 것에 힘입어 재판부는 자신들도 수구의 한 편임을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 후 항소심이 부산고법에서 진행되었고 선고공판이 12월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오늘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문제가 논의중인 만큼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기에 어렵고 입장이 곤란하다”며 올해 1월 27일로 선고를 연기했고, 2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던 1월 27일 선고 역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자 3월 17일 선고공판에서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손을 들어 주진 싫었던 모양입니다.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촉구하고, 전국에서 모여든 단식농성단이 물과 소금을 끊고 싸우고, 곧 국가보안법 폐지가 될 듯하니 재판을 미루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분위기가 가라앉자 이내 3년형을 확정지었습니다.

군사독재도 아니고 군사독재와 야합한 김영삼 정권도 아닌 그래도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 동생의 수배가 시작되었을 때 이것이 그리 오래가랴? 곧 한총련 이적규정도 풀어지고 동생도 수배가 풀리려니 했습니다.

동생이 2001년 한겨울 눈 쌓인 명동성당 계단에서 정치수배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숙투쟁을

동태가 되어 할 때도 이 생활이 오래가라
싶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민정수
석이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를 거론하며 당
연히 될 듯 얘기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도 그런 일이 있느냐고 할 때도 동생이
6년동안이나 수배생활을 하게 될 줄은 몰
랐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미 죽은 법이고, 언제 없
어져도 없어질 법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동생은 죽었다던 그 법에 묶여 6
년을 수배자로 떠돌았고, 범죄자로 3년을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법이 존재하는 한 그 법에 묶인 동생과
10여명의 국가보안법 관련 양심수들, 40여
명의 정치수배자들의 고통은 하루하루 계
속될 것입니다.

여당 일각에서처럼 '속도를 조절해야 한
다.' 거나 '어려우면 연내에는 한다.' 거나
'여야가 합의하는 게 최선'이라며 이 법을
방치하는 것은 그 고통을 모르는 때문입니
다.

4월 국회에선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
되길,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완으로 다시 살
아나지 않길 간곡히 바랍니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7차 총회

제 17차 양심수 후원회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회원 여러분,

4월 17일 오후 시간 비워두시고,

꼭 오셔서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총회 끝난 뒤,

맛있는 막걸리 한 잔씩 나누시지요.

일 시 2005년 4월 16일 늦은 3시 30분

장 소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

4월 산행



4월은 3째주 일요일에 산행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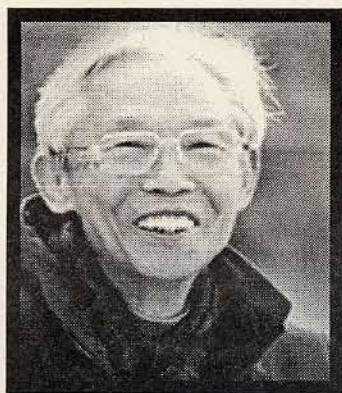
또다시 4월입니다.

흐드러진 진달래능선따라 걷다보면...

일 시 4월 17일 일요일 아침 10시

장 소 우이동 그린파크 앞

준비물 도시락, 회비 3000원



치열하게 살다가신 통일애국지사 류락진선생

통일조국을 염원하며
한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비전향출소장
기수 류락진 선생님이 평

생의 염원, 보시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 고등교육과정에서 조국해방과 사회진보의 사상적 토대를 다지셨으며, 해방공간에서는 사회진보를 위한 그리고 자주통일을 위한 일선 현장에 거침없이 뛰어 들었습니다. 전쟁시기엔 회문산 지리산 등지에서 무장전사로 활동하며 조국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외세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1951년 지리산 전투에서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 받음으로서 선생님의 고난의 가시밭길은 시작되었습니다. 4월혁명과 박정희 유신독재를 거치면서 혁신정당의 조직사업과 관련하여, 그리고 71년도 호남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또다시 20년의 옥고를 치루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지칠줄 모르는 통일투쟁은 1994년 구국전위사건으로 또다시 5년동안 높은 담장안에 갇혀 있는 등 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내셨습니다.

이같은 선생님의 오랜 옥고는 조국통일운동에서 휴식의 계절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철저한 이론학습장으로 더욱 확고한 조국사랑정신으로 출소후의 통일투쟁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통일광장 성원으로 범민련 고문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틈틈이 서예로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며 마침내 예술의 경지에 이르러 많은 서예대전에서 입선, 특선했고 서예추천작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또한 통일애국전사로서의 그 치열함 못지않게 동지애와 자애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서거소식을 듣고 많은 동지들과 선, 후배들이 슬픈마음으로 달려왔고 '통일애국열사 류락진 선생 민족통일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옥중 동지들이 함께 있는 파주시 불광사 비전향장기수 영면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고히 잠드소서.

류락진 선생께서 걸어오신 발자취

- 1928년 8월 26일(양력 10. 9)
전라북도 남원군 이백면 과림리에서 출생
- 1933년 부모와 함께 일본으로 이주, 일본 사범학교 수학
- 1946년 2월경 고향으로 귀국
- 1950년 5월 국민대학 수학
- 1950년 6월 한국전쟁 시 군당 선전부 활동
- 1950년 9월 28일 9.28후퇴 후 입산(순창, 회문산 등지)
- 1952년 3월 지리산에서 체포, 광주 포로수용소에 투옥
- 1952년 3월 30일 피검 군법재판소에서 사형선고 받음
- 1952년 10월 민간재판소로 이양돼 광주지방법원에서 5년 선고
- 1957년 10월 3일 출옥
- 1957년 신애덕 선생님과 결혼
- 1963년 혁신정당사건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 1967년 집행유예로 출옥, 5년간 지방 사립학교에서 교편을 잡음
- 1971년 3월 호남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체포, 서울지법에서 사형선고
- 1972년 대법에서 무기 확정
- 1989년 전주교도소로 이감
- 1990년 2월 20년 복역 후 감형 출옥(보안관찰 대상자 처분)
- 1994년 7월 구국전위사건으로 구속, 서울지법 무기선고, 서울고법 8년 선고
- 1999년 8월 15일 비전향 출옥(보안관찰 처분 현재에 이름)
- 2002년 5월 30일 광주지법, 백운산지구 위령비 비문 작성 사유로 불구속 입건-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국가보안법 7조 위반)
- 2001년-2003년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 2000년-2005년 현재 통일광장 임원
- 2005년 4월 1일 23시 45분 향년 78세로 영면

생전 직업

건축기사 자격취득(1964년)-건축공사 현장에 근무
중고등학교 교사근무 5년(1967년 말 경~1971년 3월)
서예가로서 서예지도를 해 오심

서예전 작품 경력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대한민국서예전 입선(서협)
대한민국서예대전 입선(미협), 한국미술협회 서예분과 회원
광주시 미술대전 추천작가, 전라남도 미술대전 추천작가
광주시미술대전 특선 3회 입선 7회, 전라남도미술대전 특선 3회 입선 7회
전국무등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 8회, 국제서예예술연합 한국본부 회원

‘물’ 같은 사랑이 가져다 주는 행복

오영순 편집위원

인터뷰 약속을 잡기위해 오가는 첫 통화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이라! 안면도 없는 회원에게 전화를 시도하며 약속을 잡아내기까지는 긴장감과 설레임을 동반한다. 전라도 땅끝 마을이 고향이어서일까? 인상 또한 푸근한 회원과 마주하고보니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채, 풀 어제친 이야기 보따리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필자는 지금 막막하다.

1965년 팔천평이 넘는 대농사를 짓는 집안에서 육남매중 넷째로 태어난 회원은 학창시절 농사일을 거두며 살았다. 새벽 4~5시에 일어나 그 많은 나락을 들녘에 널고 학교를 가야 했고, 갔다오기 무섭게 널어 놓았던 나락을 거둬들이다보면 밤 열시를 훌쩍 넘겨 늘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한다.

책을 너무 좋아해 일백원이면 4,5권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조그마한 문구책을 구입해 오고가는 학교길에 닥치는대로 책을 읽었다는 회원은 감성적이고 감성적이라 한다. 아마도 시시각각 변하는 사계절 자연을 가까이 접하며 생활한 탓이 아닐런지...

90년 한길사 기행을 기점으로 ‘옴시롱 감시롱’을 만들다 보니, 자연스레 양심수 후원회와 인연을 맺게 된 회원은 그 무렵 지금 몸담고 있는 한국통신에 입사한다. 사내연애를 하면서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였지만 인간적인 반듯함에 이끌려 연애 2년 만에 백년 가약을 맺었다는 회원에 가정사 얘기는 술술하다.

불처럼 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물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김길자회원이 사람들과 어울려 술에 취하면 한걸음에 달려와 바래다 주기를 내일처럼 했다는 남편과 사내결혼을 하다보니 회사에서 우여곡절을 겪



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김길자 회원

어야 했지만 지금도 건재하게 다니고 있다는 회원.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좋아하는 남편과는 달리 그 돈이면 ‘술’을 마시겠다 자처하기에 남아있는 술을 보면 기꺼이 마시고 일어나야 된다는 회원. 가치관은 달라도 생활상에서 존경하고도 남을 도덕적인 남편과 함께 꾸리며 사는 삶이 단란함을 느낄 수 있었다.

김길자 회원에 특기는 마라톤이다. 목적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리다보면 흠뻑 젖는 땀과 맑아지는 정신 세계에 매료된다는 회원은 대학시절 청바지 차림으로 마라톤에 출전하여 십오만원의 수상하기도 했다 한다. 준비되지 않는 출전을 나서 3등을 수상한 포상금으로 배고파하는 선,후배들에게 먹거리 잔치를 베풀었다 하니 내세울만한 특기임에는 틀림없다.

소원을 물었다.

“아빠 혼자 보면 힘드니까 ‘엄마’도 같이 벌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위해 경제활동을 편안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가족들에 무탈함과 승진이 빠른 편

보광사 가는 길

-정순덕 선생님을 추모하며-

이득행 회원

이었지만, 올해 남편이 승진했으면 좋겠다는 회원의 소원이 소박하다.

더 큰 소원이 있다면 칠십 평생 오직 한길만 바라보시며 지금까지도 설 틈 없이 분주히 움직이시는 권오현 선생님께 '자유' 시간을 드리는 것이라 했다. 가치관을 옹골케 세우며 생활 곳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힘들이 모아 모아져 큰 힘을 이뤄내 한평생 그렇게 한길만 내다보며 사셨던 선생님들에게 부끄러움을 모면하는 마음으로 보탬을 드리는게 당연한 일이라 말하는 회원이 후원회에 품은 애정에 깊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올곧게 생활하는 생활인들이 살아 가고 있는 이상 역사는 바르게 흐를 수 밖에 없다는 희망!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갈림길에서 힘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옳음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며 아쉬운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했다.

물같은 사랑을 키우기 위해선 소중히 꾸려가는 자신에 삶이 성실하기 때문일게다. 그 사랑을 키워내며 사는 김길자 회원이 언제나 우리들 곁에 푸근함으로 자리해 모든 이들 마음에 잔잔한 사랑을 심어주길 바란다. 

나는 어딘가를 급히 가다 선생님 1주기 추모 행사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가신 지 벌써 1년인가!' 탄식하며 '지난 1년 내내 선생님을 잊고 지낸 시간이 그만큼 많았구나!' 하는 생각에 송구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난해 장례식장에서 나는 생전의 선생님을 제대로 보고 선생님께 제대로 배웠는지 나에게 묻고 또 묻은 적이 있다. 당시 나는 온전한 대답을 못했다.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는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해 마음은 더욱 싸하고 아득하다.

선생님께서서는 작년 4월 1일에 별세하셨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소중하다고 했던가. 드린 정성은 적었지만 선생님과 맺은 인연은 나에게 크고 소중했다. 각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 애초에 되지 않을 일이었지만 나는 흉내라도 내보려고 애를 썼다. 모자람이 많은 내게 선생님은 뵙는 것만으로도 넘치는 그릇이었다.

오늘 보광사 가는 길은 봄빛이 그득했다. 작년 선생님께서 유골로 운구차를 타시던 그날 마냥 작은 언덕의 고개를 오르내리며 모퉁이를 휘돌 때마다 차창으로 다가섰다 물러서는 나뭇가지에서 봄빛이 푸르게 웃었다. 길은 곧지 않아 구뱃했다. 선생님이 생전에 걸은 길이 그랬을 것이다. 선생님은 구뱃한 길을 걸으며 곧은 생각만 했을 것이다. 선생님은 굽은 길에서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았던가!

"통일에국열사 정순덕 선생" 선생님의 묘비에 쓰인 비명이다.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온몸으로 일궈낸 말씀이다. 온몸 마디마디로 꺾꺾 다듬어 새긴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 숨쉰다. 숨쉬며 끝없이 말한다. "살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오늘 50여 명의 선후배 동지들이 모여 선생님을 기리고 추모했다. 추모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굴곡진 우리 현대사에서 길어 올린 금과옥조였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치고 다른 어떤 이는 드러내고 울었다.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이 서러워서야 아닐 터였다.

돌아오는 길은 내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나는 돌아섰다. 내년에는 올해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광사 가는 길을 걷고 있을 나를 기다리며. 

화창한 봄 기운에 취해

김은 간사

3월 산행은 사패산으로 갔습니다. 3월 하순이라도 아직은 꽃조차 없는 날씨가 보니 아이들 데려가기에 찬바람 걱정이 들었습니다만, 웬걸 날씨가 어찌나 화창하던지요.

산행 전부터 사패산 산세가 좋고 하도 칭찬들을 하셔서 은근히 기대를 했었지요. 딸아이가 워낙 겁도 많고 오래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가족이 오랜 만에 나선 봄나들이길이라 실례였습니다.

흠흠... 초반부터 경사가 좀 심하다 했더니, 급기야 밧줄을 잡고 오르고, 바위돌 사이를 게걸음으로 지나고, 조금 완만해졌다 싶으면 다시 산악훈련... 몇 번을 반복하다보니 저절로 헉헉댁니다.

김수룡선생님 걱정에 속도를 줄이려던 것이 제 딸과 제가 눈치를 사알살 살피며 '선생님~, 그만가요' 눈빛을 보냅니다. 선생님들 마음은 벌써 저 사패산 꼭대기에 가 계시는데, 아이들이랑 몇몇의 핑계를 대고 능선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들 얼마나 정성껏 푸짐한 도시락을 준비하셨던지 맛난 장아찌, 갖가지 반찬과, 장떡에 과일들까지, 이 음식들을 준비하던 손들의 정성이 배를 불립니다. 정성과 봄기운에 취해 즐겁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이창희회원이 준비해온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짧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답게 핵문제와 독도문제를 바로 보는 시각에 대한 논제를 잘 풀어주었고 선생님들의 예리한 질문과 논평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산이 주는 자연의 공부를 하고 있었구요. (아직 귀담아 들을 나이들이 아니지요^^)

내려오는 길에 하행코스를 따로 잡으신 변현숙선생님과 만나느라 조금 애를 먹긴 했지만,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 지루하지 않은 산행코스에 기분 좋게 내려왔습니다. 좀 험한 코스였기는 했던지 다음달 산행코스가 완만하다는데 만족들 하셨구요.

1주일쯤 뒤에 김수룡선생님을 뵈었는데 "아직 안풀렸어. 목록 갔다와야해." 하십니다.

이날 산행에는 이종린, 변현숙, 김수룡, 김교영, 송세영, 유종인, 유인오, 김재선, 장재영, 변의숙, 박철민, 나순석, 나민정, 나민지, 이창희, 김종명, 김은, 김인혜, 권오현 함께하였습니다. ♪

아빠랑 또 산에 가고 싶다

나민정, 나민지 나순석 회원의 자녀



▲ 아빠 나순석 님과 함께 산행길에 나선 두 딸 민정, 민지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와 언니와 같이 준비하고
지하철을 36정거장 타고 도착하니 많은 사람이
등산을 갈려고 모여 있었다. 힘들게 산을
올라 가다보니 약수터가 있었다.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산을 올라갔다. 약수물은
시원하고 맛있었다. 산을 올라가는데 너무나
미끄러워 넘어질 뻔 했다. 산위에 올라가 할아버지
들과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산을 내려오면서
곰발바닥 모양의 바위를 보았다. 내려오는
길이 너무 미끄러워 밧줄을 잡고 내려왔다.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다음달에도 아빠랑 같이 산에 가고 싶다.
참으로 즐거운 하루였다. - 끝 -

민지가 씀

4패 산을 다녀 와서. 나민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회룡역까지 갔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처음엔 힘들지 않았는데
많이 걷어다 보니 힘이 들었다.
산에 올라가면서 바위를 보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이었다. 곰발바닥, 사람 얼굴, 꽃구멍 등 여러
가지 보았다. 약수터물도 먹었다. 점심 때는
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점심을 다 먹고
어른들 이야기. 다 할 때 까지. 동생이랑 놀고 있었다.
어른들이 이야기가 끝나고 산을 내려갔다. 내려갈 때는
미끄러웠다. 내려왔을 때 어른들이 캠프장에
갔다. 캠프장에서 포테이토, 물, 콜라를 먹었다.
6시 30분쯤에 집에 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8시 30분
쯤이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었다.
다음달에 아빠랑 또가고 싶다.

2005 통영국제음악제 봄시즌을 다녀와서

이용준 회원

통영. 어느새 통영이 나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되었다. 윤이상이 좋아 훈련소 가기를 한 달여 앞두고 일단 무작정 내려간 자원봉사활동으로 시작한 통영 방문이 이제는 통영에 내려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 유명인사(?)가 되었다.

솔직히 털어 놓자면 굳이 윤이상을 상대로 접근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공연예술계에 종사하면서 사회참여의식이나 역사 및 정치의식이 약간은 결여되어 있는 예술계에 어떤 화두를 던질 수는 없는가 하는 고민이었다.

바로 그 매개가 윤이상이었고 때마침 윤이상을 기리는 음악제가 윤이상의 고향 통영에서 열렸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통영을 가서 음악제 관계자들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한결같이 '음악은 음악이고 우리는 윤이상의 음악만을 다룬다'는 반응이다. 한 개인의 예술적 표현이 그의 삶과 사상을 은연중에 포함되기 마련인데 어떻게 윤이상의 삶과 음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 어이가 없지만 지금 당장 어떡하랴.

통영국제음악제는 올 해로 4년째를 맞고 있지만 7회 행사로 보아야 한다.

1999년 윤이상 가곡의 밤을 시작으로 2000년 통영 현대음악제로 면모를 일신하고 2002년부터 통영국제음악제로 위상과 규모를 키워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 행사가 시간을 더해 가면서 국비와 도비까지 지원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면서 문화관광부 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화환까지 보내지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윤이상은 아직까지 명백한 '간첩'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통영시는 '간첩 윤이상'을 기리는 음악제를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간첩을 기

리는 축제에 축하 꽃다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코메디 같은 상황이 우리 사회에 버젓이 연출되고 있는가. 이런 연유로 윤이상의 미망인 이수자 여사는 많은 초청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땅을 밟지 않고 있다.

너무 딱딱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 명색 여행을 다녀온 후의 즐거운 여행 소식을 듣자는 것인데…….

외국은커녕 제주도도 한 번 다녀오지 못한 입장에서 외국과 통영을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은 말이 안 되지만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호주 시드니의 앞 바다보다도 이탈리아의 베니스나 나폴리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라고 입을 모으는 곳이 통영이라고 한다. 정말 우리나라의 작은 도시 중에서 걸어서 전체를 관광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다. 통영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걸어서 윤이상의 거리와 생가, 재래시장, 충무김밥의 원조가 되던 강구안, 세병관, 청마문학관, 해저터널, 미륵산 등을 체력만 조금 된다면 모두 하루 만에 모두 걸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역사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배경이 되는 한산섬도 거리가 가까워 금방 다녀 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회원들도 꼭 한번 즈음 가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우리 오감시통의 기행도 한 번 가볼 것도 권한다.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지만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버스 타고 5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이고, 우리가 주말에 강원도 지역을 다녀온다고 하면 차가 많이 막혀, 오가는데 6시간 이상 걸리는 걸 감안한다면 시간상으로 그리 먼 것도 아니다.

이순신 장군 사후에 이순신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세병관은 통영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



만남의 집의 봄 풍경

고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는 국보 문화재이다.

박경리 선생도 고향 통영을 떠난지 오랜 시간이 지나 자신의 통영을 방문하고 나서 “통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게 세병관”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리고 세병관 가는 작은 골목길에 우체국이 하나 있다.

지금은 그저 현대식 건물이지만 바로 청마 류치환이 이영도 여사에게 사랑편지를 보내던 그 우체국이다.

우체국 밖 빨간 우체통 옆에 청마 류치환의 시 ‘행복’의 시비가 있어 지나가는 이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한다.

소설 『김약국의 딸들』이 배경이 된 도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문화방송의 베스트극장 『그녀는 과연 행복했을까』의 배경이 된 도시. 사람들이 왜 그리 통영타령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영은 분명 매력 있는 도시임에는 틀림없다.

2005 통영국제음악제는 5월, 7월, 10월, 11월까지 계속된다. 개인적으로는 7월이나 10월, 11월 중에 통영에 한 번 더 다녀올 계획이다. ♫

인사동 데이트

목요일집회를 마치고 문상봉선생님과 인사동에 들렀습니다. “차 한잔하실래요?” 하니, “내가 사께” 하십니다. 꽃샘추위, 찬바람 맞으며 1시간 여 집회를 했으니 속까지 서늘해진 터에 따뜻한 유자차 한 잔, 너무 좋습니다.

부시와의 대화

부시는 육류가 섞이지 않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버릇 고약하다 한마디씩 안 할 수 없었죠. 하루는 점심먹고 짧은 승냥타임에 정순택 선생님께서 먹다남은 생선토막 하나를 가리키시며 “오늘 아침에 밥을 주니까, ‘할아버지, 저 굵어죽는줄 알았어요’ 하는게야.” 하십니다.

뜬금없는 말씀에 눈만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자니,

다시, “하도 고기만 찾아서 내가 어제 종일 밥을 안주고 굶겼거든.” 하십니다.

미운짓 하는 놈이라 골탕을 먹었다시는 거지만, 선생님도 영 밍기만 하신 건 아니었나봅니다. 미운 놈이랑 대화(?)하실 리 없죠.

봄비처럼 소리없이...

낙성대 만남의 집에도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몸이 편치않던 김영식선생님도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시는 듯하고요, 며칠 전엔 앞마당에 상추도 심으셨네요.

부시가 집을 나갔습니다.

부시가 집을 나갔습니다. 목요일집회 다녀오니 대문은 열렸고, 부시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식구가 되어서 살다 보니 대문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꼬리치고 달려나오던 녀석이 없어지니 조금 허전하군요.

512년 신라 지증왕 때, 독도는 우산도

북,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독도' 비망록 발표

이광길 통일뉴스 2005년 3월 28일자

독도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 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이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일본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비망록을 발표했다.

북은 27일 노동신문에 발표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비망록을 통해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나라는 조선이며, 근대법적 요구에 맞게 독도 영유를 재확인하고 그것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다름 아닌 조선”이라고 지적했다.

비망록은 “우산국이 512년(신라 지증왕 13년) 하슬라주 군주였던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평화적으로 귀속되었다”며, “우산국은 울릉도를 기본 영역으로 하면서 우산도(독도)까지도 자기의 영역으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도가 우산국의 이름인 우산(도)로 불리운 사실 자체가 그곳이 우산국의 영역이었으며 따라서 독도가 우산국의 편입과 함께 우리나라 영토로 되었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사와 세종실록지리지 등에서 이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음을 밝히고, “조선 정부는 1900년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관할지역에 독도(석도)를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비망록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섬이라는 인식은 일본인들과 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면서, “1660년 9월 5일 어업가인 오다나가 ‘송도(독도) 도해면허’를 신청하기에 앞서 동료인 무라가와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도지내송도’(울릉도안의 독도)라고 표현한 것과 1878년 12월 일본외무성 기록국장 와다나베와 공신국장 다나베의 의견서에서 ‘일본에서 송도라고 부르는 섬은 울릉도의 속도’라고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라고 지적했다.

요컨대,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를 영역으로 하는 우

산국이 신라에 의하여 통합됨으로써 국제법상 영토 취득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무주지선점’이 512년 당시 조선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도는 512년 신라에 영토 편입된 이래 언제 한번 그 영유권이 포기된 적이 없이 줄곧 조선의 불가분의 영토로서 역대 우리나라 정부에 의하여 관할되었다”는 점을 기록을 들어가며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조선정부가 이러한 전통에 기초하여 당시에 알려진 근대적 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독도의 영유권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삼 명백히 선포하였다”며 칙령 조항을 열거했다.

특히 “칙령 제41호는 정부신문인 ‘관보’ 제1716호(1900년 10월 27일)로 세계에 정식 공포되었다”며, “이로써 조선은 일본이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조작하기 5년 앞서 신라이래 줄곧 조선의 영역으로 되어온 독도의 영토수속을 다시금 확인하고 근대 국제법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내외에 명백히 선언하였다”고 지적했다.

결국 “모든 사실은 독도의 우리나라 영유가 영토편입의 국제법적 요구인 선점의 원칙과 실효적인 지배와 경영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며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불가분의 신성한 영토라는 것을 확증해준다”고 강조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일본 우익지 요미우리 신문은 28일자 해설 기사를 통해 한국인들은 ‘신라 지증왕때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를 복속한 사실을 근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나 우산국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루 앞서 북이 일본의 주장을 격파할 근거를 제공한 셈이다. ㉸

◀ ©손문상

뉴스톤 2005년 3월 31일자



잡초는 뿌리채 뽑아야...

日 UN
상임이사국 진출
계획

왜 이렇게
질겨...

침략적
패권주의

역사왜곡

미국

©정운성▶

뉴스톤 2005년 4월 4일자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2005년 4월 7일 현재 총 63명 / 민가협 조사 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김광태	노동자	건설일용노조	여중생추모집회	2004-02-04	공방, 폭력	1년6월	05/08	전주교 1117	기결
장영준	노동자	금속연맹	노동자대회(11.9)	2003-11-13	집시, 폭력	1년6월	05/05	진주교 3	기결
김석영	노동자	금속연맹	노동자대회(11.9)	2004-03-11	집시, 폭력	1년6월	05/09	경주교 375	기결
김상록	노동자	금속연맹	노동자대회(11.9)	2003-11-12	집시	1년6월	05/05	부산교 6060	기결
이상섭	노동자	금속연맹	노동자대회(11.9)	2003-11-12	집시, 폭력	1년6월	05/05	대구교 645	기결
이진영	노동자	금속연맹	노동자대회(11.9)	2003-11-12	집시, 폭력	1년6월	05/05	마산교 1334	기결
김동수	노동자	금속연맹	노동자대회(11.9)	2004-06-24	집시	1년	항소중	서울교 138	미결
임강순	노동자	금속연맹	노동자대회(11.9)	2003-11-12	특공, 집시	1년6월	05/05	경주교 866	기결
김시영	노동자	금속연맹(광주전남)	노동자대회(11.9)	2003-11-12	집시, 폭력	1년6월	05/05	의정부교 2427	기결
엄기준	노동자	금속연맹(충남)	노동자대회(11.9)	2003-12-10	집시, 폭력	1년4월+1년6월	06/12	대전교 5999	기결
박성진	노동자	금호석유화학	정리해고 항의	2004-06-10	명예훼손	2년	항소중	광주교 1348	미결
김우용	노동자	기아자동차노조	경제특구반대시위	2004-02-22	업방, 집시	2년6월	06/08	안양교 1589	기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해복투	삼성해복투활동관련	2005-02-22	명예훼손, 정통법	10월	항소중	울산교 27	미결
구재보	노동자	세원테크노조	이현중열사 관련	2003-12-22	폭력, 업방	1년6월+2년6월	상고중	대구교 2722	미결
권승복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총파업(11/15)	2004-11-23	공무원법	4월		원주교 1222	미결
강양희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강원)	공무원노조 총파업(11/5)	2004-12-14	공무원법	1년		강릉교 269	미결
노명우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서울)	공무원노조총파업(11/5)	2005-01-02	공무원법	10월		서울교 67	미결
김갑수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울산)	공무원노조 총파업(11/5)	2004-12-17	공무원법	10월		울산교 26	미결
강영구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인천)	공무원노조총파업(11/15)	2004-11-17	공무원법			인천교 5005	미결
강성철	노동자	전해투	한성여객 파업	2004-02-28	공방, 업방			영등포교 3426	미결
유진현	노동자	정우교통	노조활동 관련	2005-01-08	업방, 폭행			성동교 54	미결
안기호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파업	2005-02-13	업방, 폭력			울산교 24	미결
김종인	노동자	화물통합노조(준)	화물연대 파업관련	2005-01-09	업방, 집시, 교통방해			부산교 6056	미결
박태규	노동자	화섬연맹	노동자대회(11.9)	2003-11-12	집시, 폭력	1년6월+1년6월	06/11	부산교 1406	기결
장 철	노동자	LG정유 노조	파업	2004-08-20	업방	2년6월		목포교 9	기결
서 영	노동자	LG정유 노조	파업	2004-08-20	업방	2년6월		목포교 3	기결
김정근	노동자	LG정유 노조	파업	2004-08-13	업방	3년		목포교 14	기결
송화동	노동자	LG정유 노조	파업	2004-08-20	업방	2년6월		목포교 28	기결
오승훈	노동자	LG정유 노조	파업	2004-08-20	업방	2년6월		목포교 19	기결
심명봉	노동자	LG정유 노조	파업	2004-10-27	업방			순천교 972	미결
김용태	노동자	LG정유 노조	파업	2004-08-20	업방	2년6월		목포교 7	기결
조현수	농민	전농(청송 안덕)	한칠레FTA반대시위(6.20)	2003-11-30	특공, 폭행치상	1년6월+10월	06/03	안동교 3010	기결

2004년 10월 15일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가미결
임태훈	재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4-02-27	병역법	1년6월	05/08	서울구 3318	기결
이원표	재야	사회당(대전)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4-11-02	병역법	1년6월	상고중	대전교 800	미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피해자모임	청송감호소처우관련	2004-06-20	특가법	1년	06/06	원주교 891	기결
임성환	재야	아웃사이더(주) 대표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4-09-08	병역법			영등포구 2579	미결
엄창근	재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4-12-01	병역법	1년6월	상고중	서울구 2654	미결
강태운	재야	전 민주노동당 고문	회합통신 사건	2003-08-15	국보	6년	08/08	대구교 90	기결
임재성	재야	전쟁없는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1-28	병역법			서울구 1560	미결
정중영	재야	전철연	서대문경찰서 항의방문	2003-05-22	특공	8월+1년6월	05/07	안양교 5019	기결
김영재	재야	전철연	철거반대시위(상도동)	2004-01-19	공방,폭력	2년	상고중	서울구 76	미결
고천만	재야	전철연	성일연립철거관련	2004-12-16	공방,특공	1년	항소중	수원구 365	미결
인태순	재야	전철연(권선3지구)	철거반대시위(남가좌동)	2003-05-22	특공	1년6월	추가기소	청주여 12	가결
박두환	재야	전철연(부천소사)	철거반대시위	2005-01-09	집시,폭력			인천구 2924	미결
이동수	재야	전철연(상도동)	청와대앞1인시위	2004-09-16	집시,폭력			서울구 68	미결
조영귀	재야	전철연(수원양포)	철거반대시위	2005-02-17	집시,폭력			수원구 482	미결
김재완	재야	전철연(일산중동)	성일연립철거관련	2005-01-31	집시, 폭력			의정부교1173	미결
채남병	재야	전철연(일산중동)	성일연립철거관련	2005-01-31	폭력,공방			의정부교 664	미결
오태양	재야	좋은 벗들(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4-08-30	병역법	1년6월	항소중	서울구2820	미결
민경우	재야	통일연대	회합통신 사건	2003-12-01	국보	3년6월	06/05	서울구 186	기결
유호근	재야	희망동네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2-17	병역법	1년6월	항소중	서울구 2576	미결
김성일	학생	경기대	한총련불탈퇴(11기,12기)	2005-03-03	국보			수원 중부서	
이동진	학생	경상대	한총련불탈퇴(7기)	2004-07-27	국보	3년	항소중	진주교 8	미결
이덕용	학생	경원대	한총련불탈퇴(10기)	2003-07-19	국보,폭력	2년6월	05/12	군산교 985	기결
박대성	학생	경원대	이적표현물	2004-04-15	국보, 폭력	2년6월	06/10	마산교1048	기결
이중남	학생	경원대	2001년 민중대회	2003-10-11	집시,폭력	2년6월	06/03	공주교 1301	기결
김성봉	학생	노동자의 힘	대우차정리해고반대시위	2004-02-14	집시,화염병	2년	06/02	청주교 96	기결
임치운	학생	동아대	양심에따른 병역거부	2004-09-07	병역법	1년6월	상고중	부산구 1588	미결
최승환	학생	부산대	한총련불탈퇴(9기)	2005-01-29	국보			부산구 6033	미결
나동혁	학생	서울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4-08-31	병역법	1년6월	06/02	서울구 2360	기결
윤영일	학생	전남대	5.18 묘역 시위,이적표현물	2004-04-10	국보,집시	1년6월+1년6월	05/10	목포교 12	기결
민기재	학생	전남대(죽)	한총련불탈퇴(10기)	2003-04-12	국보	1년8월+3년	07/12	대전교 4009	기결
이상범	학생	한양대	한총련불탈퇴(11기) 스트라이커부대 시위	2005-03-02	국보, 특공			의정부교 990	미결

01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통일연대와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연대회의 공동으로 '미국의 적대정책철폐, 한반도 전쟁책동반대,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민족자주 3.1만세 행진' 행사가 진행되다. 소속단체 대표들과 회원, 청년 학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3.1절 성명서를 낭독하고 만세3창을 부른 다음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공조를 표현하는 각종 표현물과 복장을 하고 행진에 들어가다. 대학로-을지로-퇴계로-명동까지 행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의 정리발언으로 모든 행사를 마친다. 김혜정, 김은, 권오현 함께하다.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해외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중국 상양의 칠보산 호텔에서 열렸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결성식에서는 량수정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한 재중, 재미, 재캐나다, 재러시아, 재오스트레일리아, 유럽지역 등 교포사회의 사회원로 12명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했고, 위원장에는 재일한국 민주통일연합 광동의 상임고문을, 부위원장에는 문동환 목사 등 16명을 각 지역 대표 58명을 위원으로 사무국장에는 박용 범민련 공동사무국 부사무총장을 부국장에는 한호석 등 6명을 인선하다.

0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이현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찬양고무 등 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하다

※ 한미연합사는 유사시 미군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증원배치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2005한미연합전시지원(RSOI)연습과 독수리연습(Foal Eagle)을 연계해 오는 19~25일까지 남녘땅 전역에서 실시된다고 발표하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 호를 비롯하여 '스트라이커' 부대 병력과 장비를 실은 '초고속 전장지원함'이 참가하며 주한미군 6000명과 해외에서 동원된 11,000여명의 미군이 참가한다고 하다.

※ 국가보안법폐지 중앙실천단이 38일간의 폐지투쟁 농성을 임시국회 폐회와 함께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해단식을 갖다. 황태규 단장, 고은아 단원 등의 결의 발언과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등의 격려말이 있었음.

※ 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6·15공동선언 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금강산 결성식 대표단들, 이른바 방북교육을 받다.

03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결성식에 참가할 남측 준비위 대표단과 기자단 등 137명이 8시 30분 서울을 떠나 금강산 호텔에 도착하다.

해외대표단 18명도 호텔에 도착, 남측대표단과 뜨겁게 만나다. 그러나 해외준비위원회 결성에 남측 일부(민화협, 중단, 시민단체등)에서 이의를 제기, 4일 결성식이 분열치 않은 상태에서 남측대표단, 잇단 토론이 벌어지다. 남측준비위 백낙청위원장과 북측 안경호위원장 밤늦게 만나 조율했으나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다. 통일연대, 민주노총, 전농, 청년학생, 여성 등 남측의 대부분 대표단은 해외준비위원회 결성을 인정, 존중해야하고 예정대로 4일 결성식을 가져야한다고 주장. 4일 새벽 2시 주요 대표들 백낙청위원장의 보고를 받고 토론을 벌였으나 민화협, 시민단체는 여전히 해외 결성을 인정하지 않으려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다.

이날 밤늦게 해외준비위 광동의 위원장은 일단 양보하여 서울의 문동환 목사에게 전화를 하여 해외준비위를 문동환, 광동의 공동위원장으로 하자고 제안, 문목사의 승낙을 받다. 그러나 민화협 등은 공동위원장제도를 거부하며 남북만으로 결성식을 갖고 해외부분은 유보하자고 주장, 결론없이 밤을 새우다.

※ 미국은 이른바 비민주국가들에게 민주주의와 자유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2005년 민주주의 증진 법안(Democracy Act of 2005)'이 미 상하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 법안 창안자인 '마크 팔머'는 이 법안이 중동국가들과 이북을 겨냥한 전쟁책동의 명분살기라고 평가하다.

04 6·15-남북해외준비위 대표단은 노동, 농민, 청년, 여성, 종교, 문화 교육 등, 남북해외의 사이 부문모임시간을 갖고 교류협력사업 등 논의하다. 통일연대와 민화협은 따로 만나지 않다. 같은 시간, 남측 백낙청대표와 해외 광동의 대표 만나 결성식 관련 대화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하다.

오후 3시 남측대표단 전체회의를 호텔1층 세미나실에서 열다. 백낙청대표와 한충목, 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이 단상에 함께하고 이석대 민변회장 진행으로 결성식 관련 토론에 들어가다. 백낙청 대표는 결성식과 관련 1안은 남과 북 1인씩과 해외 대표2인 대표의 4인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고 2안은 남과 북측 대표만으로 결성식을 치루고 해외는 추후 선정하는 안인데 백대표는 2안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하다. 이승환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토론에 들어가다. 민화협에서 유재철 대한상이용사회 대표, 교총대표 등 발언이 있었고 통일연대에서는 박순경, 권오현, 강승규 대표를 발언하다.

권오현 대표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토론한다. "①남북해외 준비위는 각기 그 결성의 독자성과 자주성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준비위원회 결성에 대한 정관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해외준비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2인 공동위원장 제를 인정, 남북해외 4인 공동위원장제를 채택하여 오늘 결성식을 갖자 ③폭넓은 참여로 준비위를 구성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남측의 수많은 단체 계층이 빠졌다해서 남북준비위 결성에 남북해외 어디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6·15공동선언에 찬상하는 누구라도 그들의 이념, 사상, 정견 등 차이 때문에 배척되어서는 안된다. ④해외준비위 결성과 관련, 북측에서 2인제 공동위원장을 권고한 것은 폭넓은 통일운동을 위한 양보였다고 민화협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남측에서 해외준비위를 유보시키며 남북만으로 결성식을 고집한다면 합리성도 객관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편협성의 모순을 드러낼 뿐이다."

이러한 토론과정에서 남북해외 4인 공동위원장제 채택하여 오늘 결성식을 갖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어 진행된 남측준비위 운영위원회에서 백낙청위원장은 이제까지의 의견을 바꾸어 4인 공동위원장제와 결성식을 갖자고 제안, 전원 찬성으로 이틀동안의 오랜 토의가 끝났다. 이어 북측 안경호 위원장이 백낙청 대표를 찾아와 결성식문제 전격 합의, 밤 9시 30분 역사적인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갖다. 남북해외준비위원장의 축하연설 등이 있었다. 이어 9시 30분부터는 2층식당에서 결성식 축하연회가 열린다.

05 금강산 호텔 1층 세미나실에서 남북해외준비위대표를 모두 모여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결성 제1차 회의'를 열다. 남북해외 공동준비위원장이 단상에 자리한 가운데 김제남 남측준비위 사무처장, 정덕기 북측준비위 위원, 송충석 해외준비위 사무국 부국장의 공동사회로 '독도문제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남측 강승규 민주노동당위원장, 북측 김명철 준비위원, 장진만 해외준비위 부위원장이 함께 읽어 큰 박수로 채택하고 이어 제1차회의 공동보도문을 김숙임(남측), 리영희(북측), 박소은(해외) 대표단원이 함께 읽어 채택함으로써 1차회의의 모두 마침

※ 평택 대추분고 앞에서 민주노동, 전농, 한총련 등 사회단체와 평택 주민 등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 대책위 출범식'과 1차 범국민 대회를 열다. 대추리 풍물조본회, 평택지역 천지율림, 경기민청 풍물패 등의 길놀이 이어 이어 대책위 김지태 공동대표, 강정구 교수, 문정현 신부 결의 발언, 정태춘씨 등노래공연이 있었음.

※ 한평생을 항일독립투쟁과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해오신 범민련 남측본부 신창균 명예의장이 노환으로 이날밤 9시 9분 운명하심

06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의 고 김남식 선생 묘소에서 통일애국지사 고 김남식 선생 49재와 묘비제막식이 열린다. 한찬욱 4월혁명회 사무국장 사회로 추도의례에 이어 장례위원장과 호상 함께 분향재배, 그리고 권오현 노중선 공동장례위원장과 황건 4월 혁명회 전 상임의장 한홍구 성공회대학교수, 이계환 호상(통일뉴스 대표) 등 추모사, 가족(사위)인사, 참가자 분향 등이 있었음. 묘비 글씨는 통혁당사건으로 20년간 옥고를 치루고 제검관 관장을 맡고 있는 오병철 선생님이 쓰셨음.

※ 삼성병원 장례예식장 고 신창균 선생 빈소에서 각계 사회대표를 모아 고인의 장례식 관련 모임을 갖다. 유족들의 뜻도 받아 안아 4일장으로 하고 '애국통일지사 고 송암 신창균 선생 범민족통일장'으로 하며 6·15공동선언 준비위원회 남북해외 대표 등 4명과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한명수 전 한기총의장 등으로 하고 호상엔 꽃을 받들어 김원웅의원으로 집행위원장은 김규철 범남본 부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홍근수 평통사 대표, 권영세 민주노동당의원, 장영달 열린우리당의원 등으로 하다. 장례식은 8일7시 발인, 8시~9시 정동교회에서 영결예배 9~10시까지 범민족통일장 영결식을(장소미정)갖고, 범민련 사무실을 거쳐 총북 음성 선영에 모시기로 하다.

※ 건국대 학생회관 지하식당에서 나라사랑청년회, 실천연대 등 주최와 양심수후원회 등 후원으로 박순애 선생 병원비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이 열린다. 7시 30분 범민련, 통일광장, 양심수후원회원과 많은 청년학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노래공연에 이어 황선씨의 편지낭독, 권오현 후원회장의 선생님의 살아오신 발걸음 소개 등이 있었음. 양심수 후원회에서는 안병길, 김호현, 김용준, 김은, 권오현 등 함께.

08 삼성병원 장례예식장 지하1층 영결식장에서 범민련, 통일광장, 전국연합, 양심수후원회 등 사회단체와 청년학생, 유족들이 함께한 가운데 이경련 범남본 사무처장 사회로 '통일애국지사 고 송암 신창균 선생 애도 모임'이 열린다. 범남본 이종린 명예의장 고성화 선생님 출소 장기수의 추도 말씀,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의 약력보고, 범민련 재미본부 양은식 상임의장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보내온 조문을 소개수, 이성근 선생 등이대신 읽다. 이어 박종화 시인의 추모시 낭독, 노래패 '들꽃'의 노래곡, 한승헌 전 감사원장의 추도

사, 가족인사 등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노래패 '우리나라', '희망새', '아름다운 청년', '신나는 세상' 등이 함께 추도노래를 연속으로 부른다.

08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북해외대표로 장례위원회를 구성한 '통일애국지사 고 송암 신창균 선생 범민족 통일장'이 치루어진다. 250여 각계인사가 함께한 가운데 권오현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다.

추모의례에 이어 공동장례위원장인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조사, 민족시인 이기형선생의 추도시 낭독. (사)백범 정신 실천 거례연합 사무처장 홍원식 교수의 악력소개, 6·15공동행사 북측준비위원회 안경호 위원장의 추도사를 통일연대 한상열 대표가 범민련 해외본부 추도사를 홍근수 평통사 대표가 대신 읽다. 이어 백범 정신 실천거례연합 한명수 대표의 추도사, 민족총파 '출'의 '진달래의 마음' 독무(추도춤)가 있었고 김원웅위원의 호상인사, 고인의 다섯째 아들인 신혁욱님의 가족인사, 통일연대 문예위 소속 노래패의 추도노래 '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부른다. 마지막으로 유족들과 장례위원들의 헌화로 영결식을 모두 마친다. 고인의 장례행렬은 고인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서울역 근처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에 영정을 모시고 돌고나와 충북 음성 연남면 부안리 선영으로 떠나 늦은 2시 하관식을 마친다.

한편 고인의 장례식에는 북측 조국통일위원회와 6·15공동선언 북측준비위원회, 범민련 재일본본부, 재일조국평화통일협회,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범민련 재중조선인본부, 범민련 캐나다 본부 등에서 조사를 보내오다.

09 통일연대와 평통사는 웅산미군기지 5번게이트 앞에서 '주한 미군 역할확대 노린 미2사단 변환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다. 미2사단의 최첨단 미래형 사단으로의 변환은 전술지휘통제 자동화 체제(C41)는 물론 무인정찰기, 최신에 에이브람스 탱크, M270A1 최신에 다연장로켓 시스템을 갖추고 정밀타격과 원거리 작전 능력을 갖게 되어 이북에 대한 선제 정밀타격과 대중국봉쇄 등 역할을 하게 된다.

10 창신동 민가협 사무실에서 민가협 20차 총회준비위원회 제11차 준비위원회를 열다. 총준위원장으로 임기란 운영위원을 호선하고 민가협 평가서 등 의제채택, 3월 26일로 총회 절차를 확정하다. 이어 민가협과 구학협 사업평가를 하다.

※ 탑골공원 앞에서 양심수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민가협 559회 목요집회를 열다. 여는말 조순덕 상임의장, 신창균 선생추모와 6·15공동선언-남북해외준비위원회 결성

경과 등을 권오현 공동의장이 발표하다.

※ '후원회소식 161호' -원고 최종 교정.(김은, 여혜정)

※ 세계적 권위의 과학잡지 네이처(Nature)는 최근 기명기사에서 이북에서 일본에 전해준 요코다 메구미 유골의 일본에서의 가짜설 소동과 관련, 일본 데이교(帝京)대학 법의학 팀이 화장한 유골 표본을 분석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정에 참가한 '요시이 도미오' 데이교대 강사를 비롯 다대수 일본전문가들이 화장한 유골에서 (1200°)DNA추출 가능성을 믿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다.

11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주최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서중석 대표의 여는말, 김지예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경과보고, 양미강 역사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안병우 한신대 교수, 신주백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책임연구원 등의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의 호소문 낭독 등이 있었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완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12기 한총련 백중호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찬양고무 등 혐의를 적용 5년형을 구형하다.

12 웅시릉감시릉은 강북구 장미원 박윤경회원 숯불갈비집에서 3월로임을 갖고 4월말 향토문화기행 갈 것을 결정하고 대상지로 고창지역 등을 잠정적으로 지목하다.

13 나라사랑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시도와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14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헨리 하이드' 미 하원국제관계위원장(공화당)이 말한 이북을 '주적'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 '한국이 유사시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누가 '적' 인지 분명히 말해야한다'고 말한데 대해 '만약 이 땅의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서슴지 않고 동맹국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다.

※ 핵선제공격 등 대북 전쟁연습인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할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 호가 침략의 발톱을 드러내며 부산항에 들어오다.

※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지난 10일 북핵 6자 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해 • 국방백서의 주적 삭제는 미국에 혼란을 주며 •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누가 적인지 말할 것 • 대북 경제지원 재고 등 망발을 하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 남북이 화해 협력을 향해 노력해야하는 상태에서 이분법적 사고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동맹의 목적과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 • 우리는 대북 지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 이라고 반박하다.

15 종로5가 기독교교회관에서 '통일연대 5기 발족식'을 갖다. 한총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한상열 상임대표의 대회사, 북측 민화협에 보내온 축전을 한청 박희진 통일위원장이 대신 읽고 김지하 한총련 조동위원장의 금강산 공동행사 준비위 결성식 참가보고, 김규철 범남본 부의장의 미군 철수투쟁등 정치연설, 이정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특별결의문 낭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종린, 박순경 고문의 선창으로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에 대한 민족공조 만세 3창을 하는 것으로 마쳤다.

※ 대방동 여성 프라자에서 있는 북녘 못자리용 비닐보내기운동본부 주최 북녘못자리용 비닐보내기 후원의 밤 행사에 참가. 양심수후원회 이름으로 100만원을 '튼실한 통일모 키우기' 성금 전달식에서 전하다.(권오현대표)

※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6·15공동선언-남측준비위원회 청년학생 본부는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안과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전상봉 한청의장, 김지하 한총련 조동위원장, 문성순 청년학생****사랑 위원장 등의 규탄발언과 김익선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항의 서한을 일본재사관에 전달하고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다.

16 양심수후원회 제16차년도 사업평가서 총준위원회 제출 초안 마련하다(사무처)

※ 일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공동으로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규탄과 도시유키 일본대사 추방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여는말, 정신대문제 대책위 소속 김원욱 할머니, 민주노동당 이영순의 규탄발언, 통일연대 한상열 상임대표의 성명서 낭독 등이 있었고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다. 이어 진행된 촛불집회에서는 이승헌 민주노동당 통

일국장 사회로 오종렬, 권오현 대표 등의 규탄 발언과 문화 공연이 있었음.

※ 용산 철도 웨딩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 총회와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소수영, 변세환, 조명희, 임미영, 이정태, 김은, 권오현 등 함께 했음

※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통과와 관련 강력히 항의 하는 규탄성명을 내고 주권손상의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다. 또한 독도 방문을 전면 허용하고 주일 일본대사 대리를 불러 강력항의하다.

17 민가협 사무실에서 제20차 민가협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열다. 양심수후원회 사업평가. 2005년 사업계획안 심의, 총회 프로그램, 감사패 증정 대상자 검토 등이 있었고, 공동의장단은 조순덕 구학협회장을 상임의장으로 호선하다.

※ 민가협 560회 목요집회가 탑골공원앞에서 열리다.

※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35차 상임대표자 회의를 계승연대 사무실에서 열다. 보고안건에 이어 제16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열사정신 계승대회 기획안 검토, 계승연대의 기념사업에 대한 토의(민주공원), 생활지원금 심사분과위원회 계승연대 추천의 건 등 심의하다.

※ 구 동아일보사 앞에서 동아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계승연대 공동으로 '민주화운동 자유언론 해직자 원상회복촉구대회'를 열다. 동아투위 문영희 상임대표의 인사말, 정동희 4월혁명회 공동대표의 투쟁 경과보고, 오종렬, 강민조, 권오현 등 계승연대 상임대표의 규탄발언과 고승우 80년 해직 언론인협의회 대표와 정명자 70만노회 통일방직 해고자의 원상회복 촉구발언, 이영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허수아비 화형식이 있었음. 이어 프레스센터에서는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자유언론' (1975~2005)출판기념회가 있었음

※ 정부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통과와 관련 '한일관계기조와 대응방향'이란 '대일특트린'을 발표하다.

-4대기조

①인류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세계사의 보편적 방식에 입각한 과거사청산

②일본 일각의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조치 단호 대처

- ③우리의 대의원 정당성 국제사회에堂堂히 전하
④합의된 일본과의 정치, 외교적 교류는 변함없이 증진

-정부 대응 5대원칙

- ①독도영유권 확고히 수호
②시대착오적 역사왜곡 바로잡기
③일제 피해자 해결노력
④일본의 국제사회책임 주시
⑤동북아 평화 동반자 관계 지속

18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대 책위 주최로 '일본의 독도침략 규탄과 철저한 과거청산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오종력 공동대표의 여는말, 강민조 유가 협이사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이수일전교조위원장의 규탄발언과 전영순 삼청교육대 인권운동연합 대표와 여성민주회 최명숙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 통일연대, 평통사,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군축센터 공동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폐,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북침선제공격연습이라고 규탄하고 전쟁의 전도사 라이스 방한반대, 대북적대정책철폐 등을 촉구하다.

※ 우리나라의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협의회 일본위원회', '강자연행 기업책임추구재판 전국네트워크'는 여의도 국회앞에서 100여명 소속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일본 역사왜곡해결을 위한 한, 일 시민단체 연대집회'를 열다.

19 광화문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공동으로 '라이스 미국무장관 방한반대 규탄대회'를 열다.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대회사, 문경식 정농의장 등의 규탄발언과 송효원 한총련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결의문에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중지, 대북적대정책철폐, 주한미군철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취소 등을 요구하다.

20 용산미군기지 1번게이트앞에서 통일연대, 범남본, 민중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 13개단체는 '전쟁반대 평화실현 남북해외공동선언 발표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목 집행위원장 사회로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의 여는말, 각계 발언으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장수경 반미여성회 집행위원장 등의 결의 발언과 전상봉

한청의장의 공동선언 낭독이 있었음. 남북해외공동선언은 남측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통일연대 등 13개 단체 북측에서 민화협, 조선직업총연맹 중앙위원회,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등 9개 단체, 해외에서 범민련 해외본부 등 18개 단체 모두 40여 민족운동단체가 함께 했음

※ 같은 자리에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공동으로 400여 소속 회원과 청년학생들이 함께한 가운데 대북 적대정책철폐, 한미합동군사훈련중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2005년 반미반전 투쟁선포 집회'를 열다. 권오현 대회협력국장 사회로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 이규재 범남본의장, 민주노동당 인천시 김선진위원장, 송효원 한총련의장 등의 결의 발언과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의 투쟁선포문 낭독이 있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나순석, 김은, 권오현 함께.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미국의 이라크침략 두들을 맞아 3.20 국제반전행동 주최로 '3.20국제반전행동' 집회가 열리다. 25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1부행사는 반전콘서트를 진행, 밴드 '바람'과 가수 정윤경 씨 등이 출연했고, 2부행사는 최선희 평화여성회 사무처장 사회로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대회사, 이라크 바스라지역 석유노동조합 파루옥 사딕 이스마일 국제국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 일본에서는 카사하라 히카루 APA일본운영위원 등의 결의 발언과 연대발언이 있었고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회공동대표가 3.20국제반전행동 결의문 낭독하다. 이어 참가자들은 광화문까지 각종 표현물을 갖고 행진, 교보문고 앞에서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의 정치발언으로 모두 마치다. 이어 일본대사관으로 이동, 일본의 독도침략규탄 촛불집회를 열다. 나순석, 이창희, 김은, 권오현 함께하다.

※ 미국이 지난 1월말 2월초에 걸쳐 마이클 그린 미 국가안보회의(NSC)아시아 담당국장이 한중일 3국에 이북이 리비아에 핵물질을 수출했다는 정보의 통보는 대북압박강화를 위한 '거짓'이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폭로하다.

21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16차년도 11차운영위원회와 제17차 정기총회준비위원회 제1차모임이 있었음. 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활동보고와 재정보고가 있었고, 바로 총준위 제1차모임 회의를 열었음. 김규철 지도위원, 노중선 감사, 김지영, 김호현, 모성룡, 권오현 운영위원과 김은 사무차장이 함께 했음. 참석 못한 총준위 위원들의 위임을 받아 김규철 지도위원을 총준위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총준위 심의의안을 채택 했음. (제16차년도 사업평가 및 회계 검토, 모

법회원 선정안, 임원선출안, 회칙검토안, 17차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총회보고서 제작안 검토, 총회준비 점검 등) 이어 총회 날짜와 장소로 4.16일 오후 3시 30분 기독교회관 2층강당으로 확정했으며 모범회원선정기준을 마련하고 16차년도 사업평가를 하다. 임원선출안은 회장단과 김호현 운영위원에 위임하다.

22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공동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규탄 거리캠페인이 진행된다. 이날은 양심수후원회와 통일광장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진행, 전단나누어주기, 각종 반전평화 포스터 진열, 선전방송 등을 하다. 한광림, 통일광장 변현숙선생님, 양심수후원회 권오현대표 선전방송을 하다.

☛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은 서울과 평양, 도교에서 전화와 팩스를 통해 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 회의를 열고 빠른 시일안에 '미군철수 남북공동대책위'를 세우는 '결정서'를 채택하다. 결정서에서는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등 통일운동에서 기본구조로 하는 3대공조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하다

23 녹색연합은 안국동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전시지원연습(RSOI)개시 3일전인 지난 16일 LA급 공격형 미핵잠수함(SSN-668LH)이 진행 해군 소모도기지에 정박한 것을 확인했으며 사진자료를 공개하고 이는 남북사이에 협박한 비핵공동선언위배라며 즉각 철거를 주장하다.

☛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통일연대와 민중연대 공동으로 '독도수호, 다카노 일본대사 추방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다. 소속회원 등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이주희 학생(서울대) 사회로 주중환 민화련 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정신대 대책위 소속 길원옥 할머니의 일본 침략 야욕규탄 발언 등이 있었고 노래 공연등이 있었음. 마치고 일본대사관 앞까지 촛불행진을 하고 한미일 동맹반대, 주한일본대사추방, 독도주권지키기, 역사왜곡 중단 등 구호를 외치며 마쳤다.

24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전태일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자회의에 참가하다. 기념사업 경과보고와 재정보고에 이어 2005년 사업계획안과 조직개편안 등 심의하다.

☛ 청와대 부근 옛 정부합동청사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주최로 '군사공조 한미공조 폐기, 민족공조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이경원 사무처장 사회로 이규재 의장의 여는말, 각계대표

로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김지하 한총련 조동위원장의 연대결의발언, 범민련 인천연합 이태형 의장이 민족공조 촉구서한을 낭독하다. 마치고 이규재의장 등 청화대에 촉구서한 전달하다.

☛ 민가협 561회 목요집회노동자 양심수 석방과 노동탄압규탄 내용으로 진행

☛ 양심수후원회 지도위원이신 김영옥 범남본중앙위원의 형수님(박순심)이 23일 별세하여 고양시 화정지구 명지능곡병원 장례예식장에 빈소를 마련하여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25 서울중앙지법 합의22부(재판장 최완수 부장판사)는 한총련 12기 백중호의장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찬양고무죄 등을 적용 징역3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다. 한편, 방청했던 한총련 학생들과 민가협어머니, 범민련 성원과 양심수후원회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백중호의장 출소환영과 국가보안법폐지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장, 임기란 민가협 전상임의장, 이종린 범남본 명예회장 등의 한영사와 국가보안법폐지 이적규정 철회, 유죄판결 규탄 발언이 있었음

☛ 통일연대 회의실에서 5기 통일연대 1차 상임대표자회의를 열다. 6·15공동행사준비위 결성 등 보고안건에 이어 논의안건으로 ① '가톨릭농민회',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의 가입안을 승인하고 ②5기 고문과 지도위원 위촉한 인준 ③ 6·15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주요사업과 집행계획안을 심의통과시키다. 또한 반일투쟁에 대한 기획안도 토의 통과시킴

26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민가협 제20차 정기총회가 열린다. 제1부 총회로 권오현 공동대표 사회로 민중의례와 인사말에 이어 홍근수 평통사대표의 축사, 권오현 대표의 오신분소개, 임기란 총준위원장의 총준위 경과보고, 조순덕 상임의장의 2004년도 사업보고, 서경순운영위원의 재정보고, 권처홍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고 큰 박수로 승인하다. 이어 특별결의문 제안이 있어 김정숙 운영위원이 읽고 만장일치로 채택하다. 이어서 2005년 사업계획을 임기란 운영위원이 제안설명, 박수로 채택하고, 감사선출은 전임자 권처홍, 안옥희 감사를 유임, 동의를 박수로 통과시키다. 이어 상임의장, 공동의장, 총무, 사무국 일꾼들 소개와 인사. 최광기(인권

콘서트 사회 등), 강시원(민주가족 제작 등 헌신), 권응보(자원봉사), 차재홍(목요집회 기기운반 등) 4분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음. 이어 조순덕 상임의장의 인사말, 이영운영위원의 총회 결의문 낭독을 큰 박수로 채택함으로 1부 순서 마침. 2부는 민가협이 걸오온 길 영상상영, '어머니들의 밥상'이란 주제로 민가협 어머니들의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등 마당극으로 형상하는 것 등으로 모두 마침.

※ 전국농민회 총연맹 등 6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북녘웃자 리옹 비닐보내기운동 본부는 북녘개성시 봉동에서 1차분 200톤을 북측에 전달하다. 이 전달식에는 남측에서 박민웅 전농 사무총장 등 8명이 북측에서는 김순복 조선농업근로자연맹 부부장 등이 함께 했음.

21 양심수후원회 3월산행이 있었음. 1호선 화릉역에 모여 화릉 매표소-범골능선-사패능선-범골능선-화릉역으로 내려오는 산행이었음. 사패산 정상까지는 못갔지만 산새가 좋았고 의정부시 등 전망도 좋았음. 점심식사를 하고 이창희회원이 준비한 독도 영유권문제, 핵문제 등 시사문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음. 이종린, 변현숙, 김수룡, 김교영, 송세영, 유종인, 유인오, 김재선, 장재영, 변의숙, 박철민, 나순석, 나민정, 나민지, 이창희, 김종명, 김은, 김인해, 권오현 함께하다.

28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파렴치한 억지이며 재침략의 발현이다'란 제목으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비망록'을 27일자 노동신문에 발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차장검사는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에 대해 사회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결과 무혐의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하다.

29 평동시는 용산국방부앞에서 제44차 평화집회를 열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중단, 직도 사격장 대체바대, 조기 경보기 도입중단 등을 촉구하다.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91년 김기설 전민련 사회부장 본신과 관련 유서대필을 했다는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옥고를 치루었던 강기훈씨와 당시 전민련 일꾼들과 인권단체 대표들이 모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열다. 함세웅 공동대표가 읽은 발족

선언문에서 참가자들은 과거청산법 등 개혁법안 조속한 법제화, 사건관련 검사들 인사대상제외, 당시 국과수 분석실장 김형영의 양심선언추구, 유서대필사건을 과거사청산의 의제로 결정할 것 등 촉구하다.

※ 권오현 양심수후원회대표는 민중의 소리 라디오방송 '우문속의 시사광장' '시사광장이 만난사람'에 출연, 살아온 삶이 아끼기 나누다.

※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서대문 경찰서 남관 4층에서 개소식을 갖고 '용공조작', '고문의혹', '불법선거개입의혹', '민간인 사찰의혹'을 포괄적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위원회를 민간대 경찰을 10:5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다. 조사대상으로는 • 서울대 깃발사건 • 민청학련사건 •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 자주대오사건 • 민청학련사건 • 남민전사건 • 46년 대구 민간인학살사건 • 보도연맹 학살의혹사건 • 나주부대사건 • 진보의련 사건 순이라고 하다.

31 탑골공원앞에서 민가협 562회 목요집회 열다. 여는말 조순덕 상임의장, 국가보안법폐지 한총련합법화관련 권오현 공동대표 발언, 양심수석방, 국가보안법폐지 서경순 운영위원발언 등 있었음

※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종로6기 기독교회관 2층 부페에서 '계승연대 후원의 밤' 행사를 열다. 후원의밤 행사에 앞서 한총련 공동집행위원장 진행으로 신자유주의 분쇄, 반전평화 제16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및 열사정신 계승대회 기획안과 행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심의 있었고 2부 행사는 김병주 집행위원장 사회로 오종렬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범민련 남측본부 소순관 부의장 등의 축사가 있었음.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 검사)는 최창집교수의 저서 '한국민주주의 조건과 전망'이 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규정했다며 대한민국 건국회 손진 대표 등 16명에 의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고소고발했던(1998)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리하기로 하고 '태백산맥' 저자 조정래 씨와 한길출판사 김언호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등 결정을 내리다.